미워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아!

(엡5:21~33)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미워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미워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아!
미움과 사랑은 근본적으로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이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닌 거 같아요.
미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은 공통된 관심이라고 하는 분모 위에서 반대가 된다, 라는 얘기에요.
반대라는 말 자체가, 공통된 비교의 지평 위에 세워놨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관심이라는 공통된 지평 위에서, 사랑과 미움은 반대의 감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과연 미움과 사랑이 반대의 개념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먼저 기억을 해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나의 교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목숨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교회 안에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마땅히 자연스럽게 무지하게 좋아해야 되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은 미워하라 그러신 다음에, 당연히 마땅히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상인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 그 개념과 경계와 대상이 완전히 혼란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땅히 좋아해야 되고, 마땅히 마음으로 아껴야 되는 피붙이들은 미워하라 그러시고, 내게 금전적이거나 내 명예거나 내 자존심이거나, 하여간 무엇이든지 내 것을 손해를 끼치는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됨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아들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됨은, ‘참 믿음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 아들 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좋아하는 대상은 미워하라는 얘기는, 마음에서 떨쳐내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원수를 마음에서 떨쳐내는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마음에서 떨쳐내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되고, 마땅히 미워해야 되는 원수를 마음에서 떨쳐 내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자체를 원수에게도 뺏기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애인에게도 뺏기지 말아서,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얘기가 완전히 엉클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대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혼란스러워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면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좋아하고 있었던 것은 미워하면서 떨쳐내고, 기존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은, 사랑함으로써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넘겨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면서, 그 원수를 축복하면서.

자!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미움에 대한 언어 사용을 우리가 선이해로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맺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행위가 빛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관계와 상전과 종의 관계로 크게 구분지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확장되어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일된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사랑과 미움의 대상의 혼란을 야기 시키시면서 말씀하려던 의도가 그대로 담겨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평행선을 긋는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를 그냥 그 사도바울의 용어 그대로 성실하게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교인인 한에 있어서, 각자가 그리스도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 집사님을 대할 때 눈으로는 김 집사님을 보고 있지만,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괄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김 집사님도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하느냐? 복종하라는 얘기에요.

복종하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아래로 정렬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정렬한다, 마치 영어에서 'under stand' 그런 비슷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아래로 정렬합니까? 그 사람 아래에 가서 서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고, 소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내가 경청하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게 그 사람 아래 서는 거,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내 위에 있는 사람으로 승격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라도, 일자무식장이 할머니 권사님이라도, 그 분을 내 위로 올려놓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괄호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인들끼리 '아유~ 김 집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데, 또 김 집사님이 나를 볼 때도, 아유~ 저 양반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분인데, 저분에게서 나오는 말씀,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저분이 하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인데' 라고 서로 인정한다면, 그 아래 서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복종할 때, 복종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래 선다는 말이에요 아래 선다.
그렇게 위로 승격시킬 때, '나와 너'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김 집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윗사람으로 위로 올리고, 나는 그 아래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를 향해 말씀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좀 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장로이고 그 사람은 집사이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이게 방해를 받게 될 경우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뭐에요?
마음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 가서 묶이기 전에 제일 먼저 맨 마음으로, 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기존에 가족들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다른 모든 대상들이 있던 거를 미워하면서 떼어내서, 알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기존에 원수를 미워해서 원수에게 붙어있던 마음을, 알 마음이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알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경외이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각자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끼리 만날 때에, 서로 상대방을 내 위로 올려주는, 승격시키면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고, 그럴 때 교회가 몸이신 예수님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달려 있는 몸으로써,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싸우지 않고,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는 것처럼, 통일된 지체들이 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지침이 관통되어지고, 일관성 있게 지탱되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신 교회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바울의 생각 속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되는 모든 지체들이, 사실은 다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써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오른발이 머리에 연결되어서 말을 듣고, 왼팔이 머리에 연결돼 말을 듣는 것처럼,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계의 중심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다고 하는 이 관계가.
이걸 중심점으로 해 가지고, 방사 형태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각 지체들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부부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모~든 이 세상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제일먼저 만난 분이 하나님이고, 하와도 제일먼저 만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갖다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은 모르고 있는데 하와를 데리고 가서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맺어진 최초의 인간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에요.
남녀의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로부터 자식과 자식의 관계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곳곳에 가정으로 가정으로 확대되어서, 사회가 되고 그것이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관계로부터 바라봐서 부부관계로 확대되고, 자식관계로 확대되고 그것이 사회에 인간관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다고 하는 이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관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파생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의 준거입니다.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묶이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모든 대상에 대해 죽고, 오직 맨 마음, 알 마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로 묶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뭐냐?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남편이 아내 앞에서도 과연 그리스도를 제일먼저 관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도 과연 아내가,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제일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해 낼 수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다고 '우리, 우리' 해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남편에게 아내가 먼저이고, 아내에게 남편이 먼저인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 경외함이 깨어지느냐 안 깨어지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그러므로 아내를 대할 때는, 그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아내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먼저 괄호로 묶여있는 관계로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내를 대할까?' 아내는 '주님과 함께 남편을 대할까?'
이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이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바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사회에 나가서 상전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괄호로 묶여 있다는 이 존재의 구조, 이 관계의 구조가 확증되고, 강화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가지고 맨 마음, 알 마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괄호로 묶이면 돼요, 각자가.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대사회에서 부장님과 과장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유지되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화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변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핵심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듯이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할 것이다.
이 얘기를, 참 많은 여성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가렛 대처여사 같은 분이 수상 직을 수행하고 계실 때는 그 남편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남편과의 관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그 남편과의 관계.
마침 우리 박 근혜 대통령께서는 남편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은 없겠지마는, 복종하라는 게 그 시대에 시대적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

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남편이 밥 해! 그러면 밥하고, 가서 빵 사와! 그러면 빵 사오고, 가서 내 술안주 좀 해와! 그러면 술안주 해오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인간적으로 기준을 갖고 생각할 때 못난 남편이고, 돈 못 버는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무능할 수도 있는데, 그 남편과 주님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보는 겁니다.
묶여있다고 보면서, 남편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청와대가 삶의 현장이 됩니다, 남편이 사장님이면 사모님의 입장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남편 때문에 주어진 삶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남편이 하나 되어 묶여있는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니까, 그 남편을 주도해 가고 남편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결국 아내로서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나의 세계라는 것은, 남편을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믿지 않는 남편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남편도 주님과 알 마음으로, 맨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주님께서 그 나의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남편에게 사업이 안 되게끔 하시는 거고, 남편이 사업이 잘되면서 점점 더 주님께 멀어져간다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편에게 복종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
아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에요.

나를 내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내가 내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대부분 내 몸을 가꾸기만 가꾸지, 내 몸을 뜯어 고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뜻의 결정체이고, 그가 나를 내조하는 그 방식 안에서 나는 살아가면 된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환경을 감사합니다.
나를 내조하는 아내의 성격과 아내의 특성과 아내의 영향과 능력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관계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관건은, 어떻게 아내와 남편 앞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와 남편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로 괄호 안에서 묶이는 존재로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것만 유지되면, 복종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남녀의 관계가 부부관계에서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교회의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각자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상전 앞에서 종 앞에서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그 부부의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